

Benzene, “동부한농이 찬물 끼었다”

FOB Korea 360-370달러로 30달러 하락 ... 파업 1만8000톤 과잉유발

Benzene 가격은 9월6일 FOB Korea 톤당 360-370달러로 30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벤젠 시장은 한국기업들이 9월 공급가격을 FOB 400달러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서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급락세로 돌아섰다.

아시아 가격은 9월말 또는 10월초 거래 기준으로 CFR 370-380달러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300달러 후반대의 강세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동부한농화학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Styrenic 플랜트 가동을 중단해 벤젠 소비를 중지함에 따라 타이완 공급기업들이 1만8000톤을 시장에 내놓으며 가격하락을 이끌고 있다.

아시아 벤젠 가격은 FOB Korea가 톤당 360-370달러로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고, CFR Taiwan 및 FOB SE Asia, CFR Japan도 370-380달러로 비슷하며, CFR India는 390-400달러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9월 첫주 평균가격은 377-390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벤젠 Spot 가격은 FOB US Gulf 갤런당 129.00-132.00센트로 톤당 평균 391달러를 형성하며 13달러 상승했다.

미국은 Aromatic 시장이 침체되면서 벤젠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NYMEX 가격은 배럴당 1달러 이상 하락했다.

9월 공급물량 16만배럴 이상이 갤런당 120-123센트에 거래됐고, 8만-10만배럴은 126센트를 형성함으로써 추가하락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9/ 09 >